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시민 추모문화제 진행

8 현지현 기자 (대구본부) | ① 승인 2024.07.05 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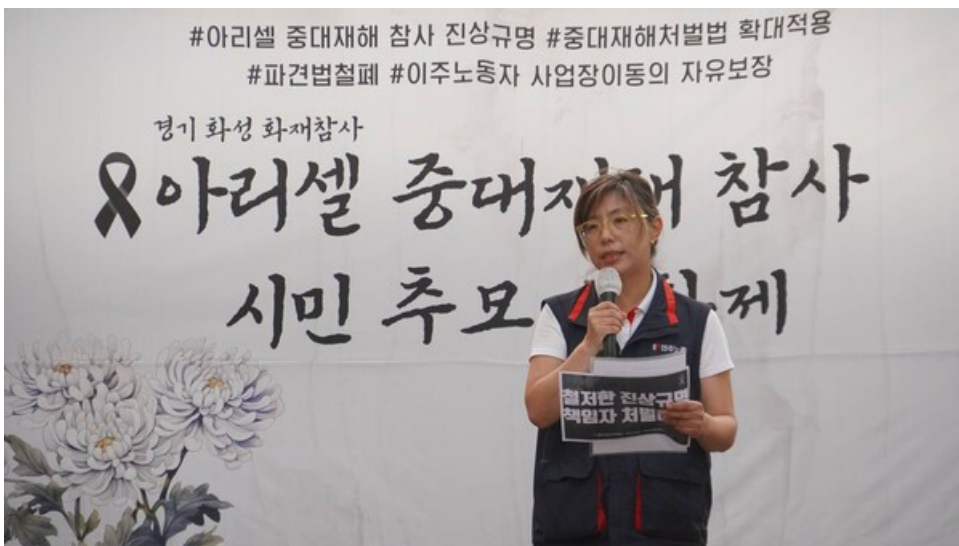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무도 일터에서 다치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구현되는 사회 건설하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시민 추모문화제

지난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CGV한일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4.16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7월 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일간 추모분향소를 운영했다.

5일간 운영되었던 추모분향소에는 대구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자리를 지켰고, 수많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며 추모의 마음을 나눴다. 헌화를 했던 많은 시민들은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아리셀 노동자의 사망은 우리사회가 만든 것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국익으로 포장되고, 회사의 수익을 위해 노동권은 좀 양보해야 되고, 나쁜 일자리는 여성과 이주노동자가 대체 하는 게 당연한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발언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박순종 목사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박순종 목사는 "희생자들이 잘못해서 죽은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힘든 일들을 하청노동자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이 사회를 바꾸지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대구4.16연대 정금교 목사

대구4.16연대 정금교 목사는 "노동자를 사람대접해 달라고 자신을 불살랐던 전태일의 나라, 50여 년이 지나고도 달팽이처럼 느리게 노동자를 돌아보는 나라, 이런 나라에 오지 않으면 안되는 그대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가슴을 칩니다. ... 그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고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그대들도 죽었습니다. ... 가끔 분노했고, 가끔 추모했던 저희들이 잿덩이가 된 그대들의 꿈

을 맞잡으며 그래도 다시 약속합니다. 아무도 일터에서 다치지않는 나라,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을 다시금 약속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재환 조직부장

이날 추모제에서는 신경현 시인의 추모시가 낭독됐다.

참가자들은 분향소에 헌화를 하며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이후 전국에서 추모문화제와 1인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안과 실행방안 마련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 촉구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너희가 나를 죽였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신경현

나는 죽었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일반산업단지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시커멓게 그을린 고통을 붙잡고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죽었다
 몇 일 전까지 살아있었던 나는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한국에서 온
 가난의 이력은 달랐으나 배고픔의 깊이는 똑같았던 파견노동자였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누나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남편이었던 나는
 매일 아침 고단한 뒷모습으로 파견된 공장으로 가기 위해 통근 버스를 기다렸다
 이 공장, 저 공장 파견업체의 명령에 따라 일하면서 상품으로만 존재했던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가차 없이 버려지고 말았던 내게
 비상 상황에 무엇이 위험한지 어디에 안전 장구가 있는지 알려주는 이 하나 없었다
 15초 만에 온 공장에 불이 났던 그 날, 비상구를 찾아 메케한 연기와 불길에 쓰러져
 팔다리가 찢어지고 머리가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알았다
 불법 파견노동자였으며 이주 노동자였던 내게 허락된 비상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폐허처럼 버려져 껌껌한 슬픔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나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끝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껌껌 울 수밖에 없었다

어둠을 틈타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리셀 사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였고
 한국 정부는 진수 조사를 통한 파견노동자의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단 말만 했다
 뜨거운 고통의 화랑자옥 비랑으로 내몬 자, 누구인가
 순식간에 가족들과 애끊는 이별의 나락으로 끌어당긴 자, 누구인가
 이윤에 눈이 멀어 불법파견을 확대 조장하고 중대 재해의 심각성을 숨기기 바빴던
 대한민국 정부와 원청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자본이 나를 죽였다
 자본주의에 부역하며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던 너희가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구입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너희가
 적절한 양심과 적절한 교양을 걸친 채 자본주의 너머의 가능성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너희가
 가끔 추모하고 가끔 분노하다 결국 변명으로 침묵했던 너희가
 나를 죽였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추모시 `너희가 나를 죽였다`



현지현 기자 (대구본부) dsxc@naver.com